

# 금난새와 함께 하는 불턱 음악회

11일 해녀박물관

등록 : 2012년 02월 12일 (일) 23:01:47  
최종수정 : 2012년 02월 12일 (일) 23:01:4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숨비 소리만큼 깊고 그윽 하네요”

금난새와 함께하는 불턱 음악회가 11일 해녀박물관 4층 전망대에서 열렸다. 지역 잠녀와 잠녀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금난새 지휘자는 특유의 위트 넘치는 해설로 편안하고 가까운 음악 무대를 꾸려 큰 호응을 얻었다.